

『대일경』의 보살사상

李 鳳順(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I. 머리말

필자는 지금까지 초기불교 경전에서부터 부파불교를 거쳐 반야경·유마경·법화경·화엄경·무량수경 등의 초기대승불교경전과 승만경·대승열반경·해심밀경 등의 중기대승불교경전에 이르기까지의 보살사상을 살펴왔다. 이제 인도불교의 보살사상을 살펴보는 마지막 순서로서 『대일경』¹⁾의 보살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밀교의 보살사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일경』을 저본으로 삼은 것은 『대일경』7권과 『금강정경』의 성립을 계기로 밀교가 현교와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는 성격을 갖게 되었는데, 『금강정경』의 보살사상은 이미 연구되어 있기²⁾ 때문이다. 『대일경』의 산스크리트본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번역본으로는 한역과 티벳역이 있다. 경의 성립시기는 善無畏가 無行으로부터 범본을 입수하여 『대일경』의 기본적인 부분인 前6권을 한역한 것이 A.D. 724년이므로 학계에서는 梅尾祥雲의 7세기 중엽설을 수용하고 있는 편이다.³⁾ 성립지는 서인도설도 있지만 당시 교학의 중심지였던 Nalanda를 중심으로 한 중인도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여러 전적에 남아있는 산스크리트 단편을 한역·티벳역과 대조한 결과 각기 다른 형태의 『대일경』 범본이 있었

1) 『대일경』의 정식명칭은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이다.

2) 金永德, 「金剛頂經의 菩薩思想 研究」, 『密教學報』 제2집

3) 梅尾祥雲, 『秘密佛敎史』(和歌山縣: 高野山大學出版部, 1993), 16-36쪽

다고 추정되며, 현존하는 『대일경』 한역본도 한 번에 현재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두세 번에 걸친 증광이 있었다⁴⁾고 본다.

『대일경』의 주석서로는 선무외와 一行이 『대일경』을 번역할 때 동시에 주석한 『대일경소』 20권과 智儼과 濫古가 교정한 『대일경의석』 14권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선무외가 번역한 『대일경』을 底本으로 사용하고 一行이 한문으로 쓴 『대일경소』 20권과 『대일경의석』 14권을 참고하려고 한다.

II. 『대일경』 보살사상의 이론적 근거

『대일경』은 다른 대승경전들과는 달리 “보리심을 인(因)으로 하고, 대비를 근본으로 하며, 방편을 구경(究竟)으로 한다”고 하여, 대승의 출발점으로서 ‘보리심’을 중시한 『반야경』의 흐름을 이으면서도, 역사적 인물인 석존을 새롭게 이해하여 법신불로서의 ‘대일여래’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삼밀수행을 통하여 종교적 인격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일여래의 내증의 세계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삶 위에 구체적으로 구현된 이상세계를 형상화하여 만달라라고 부르는 등 밀교는 사상적으로 현교의 교학사상을 계승하면서도 나름대로 특징 있는 교학체계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보살사상에 있어서도 현교와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1. 대일경 보살사상의 출발점

『대일경』은 『주심품』에서 집금강비밀주의 질문에 법신불인 비로자나여래가 답하는 형식을 빌려 절대 지혜인 一切智智를 획득하는 방법과 그 이론적인 근거를 설명하면서 맨 먼저 설법장소인 광대금강법계궁을 다음과 같이

4) 李廷秀, 「『大日經』의 성립에 관한 一考」, 『밀교학보』 제5집, 94-95쪽 참고

묘사하고 있다.

여래가 믿음과 이해로써 신통변화를 부려 큰 누각보왕을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높이가 하도 높아서 중간도 없고 끝도 없다. 크고 미묘한 온갖 보석을 가지고 꾸몄으며 보살의 몸을 사자좌로 삼았다.⁵⁾

『대일경소』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보살의 몸을 사자좌로 삼는다고 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금강법계궁이 바로 여래의 몸이며 다음에 말한 큰 누각보왕도 역시 여래의 몸이라는 것을 자세히 밝힌 것이며, 지금 사자좌라고 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알아야 한다. 보살의 몸이라고 말한 까닭은 (여래께서) 본래 보살도를 수행할 때 10 바라밀과 11지의 모든 수행을 차례대로 다 닦은 것을 말한 것이며, 뒤의 수행단계는 앞의 수행단계를 기초로 한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래는 보살의 몸을 사자좌로 삼는다고 말한 것이다.⁶⁾

여기서 『대일경』을 설한 장소인 금강법계궁이 보살의 몸을 사자좌로 삼고 있다는 것은 현교의 보살사상을 밀교가 출발하는 기초로 삼고 있다⁷⁾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서운길교수는 「주심품」의 질문자인 집금강비밀주의 이름에서 ‘금강’이라는 말의 경전상의 의미는 모두 “변함없는 마음” 또는 “不動의 지혜”를 가리키고, 부동의 지혜를 증득한 경지의 보살은 보살의 10지 중에서 제8지가 부동지이기 때문에 『대일경』은 제8不動地 이상의 보살을 상대

5) 『大日經』(『大正藏』 18, 1a), “如來信解 遊戲神變 生大樓閣寶王 高無中邊 諸大妙寶王 種種間飾 菩薩之身為師子座”

6) 『大日經疏』(『大正藏』 39, 580c-581a), “此中應廣明菩薩之身為師子座者。上說金剛法界宮。卽是如來身。次云大樓閣寶王。亦卽是如來身。今云師子座。當知亦爾。所以云菩薩身者。謂本行菩薩道時。次第修行地波羅蜜。乃至第十一地。當知後地卽以前地爲基。故云如來以菩薩身為師子座”

7) 徐閔吉, 「密敎의 敎學的 位相과 그 特性」, 『한국불교학』 (1995), 280-281쪽 참고

로 하여 전개되며, 이것이 『대일경』을 근본으로 하는 밀교의 출발점⁸⁾이라고 하였다.

2. 삼구의 법문과 보살사상

『대일경』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여실지견심(如實知見心)이 바로 불(佛)의 지혜를 획득하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보살도라고 설명한다. 마음은 보리(菩提)와 다르지 않으므로 자신의 마음 그대로 보리를 구해야 하고, 바로 그 범부의 마음을 차례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순세(順世)의 팔심(八心)과 세간적인 육십심(六十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 개개인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이 범신비로자나를 존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이때 깨달음이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여실하게 두루 이는 것’이며, 우리 인생은 자기 마음을 이는 과정일 때에 참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를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대일경』 「주심품」의 삼구(三句)이며, 이 『대일경』 「주심품」의 삼구법문이 보살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長澤實導 박사는 蓮華戒의 삼구 해석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연화계는 『대일경』의 삼구로부터 반야와 방편이 상응하는 보리심의 뜻을 서술하고 있다. 비로자나성불경에서는 ‘이 일체지지는 悲를 근본으로 삼고 보리심을 인으로 하며 방편을 구경으로 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보살은 항상 두 가지(방편과 반야)를 부런히 수습해야 한다. 연화계에 의하면 보리심은 반야이고, 悲와 究竟은 방편이다.⁹⁾

8) 徐閏吉, 앞의 논문, 284쪽.

9) 長澤實導, 『瑜伽行思想と密教研究』(東京: 大東出版社, 1978), 572쪽.

이와 같이 삼구 중 보리심은 반야에, 비와 구경은 방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삼구가 보살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연화계는 보시 등의 앞의 5바라밀은 방편으로 삼고, 제6의 반야바라밀은 반야 즉 보리심으로 보고, 다시 방편은 사마타, 반야는 위빠사나로 보고, 방편과 반야는 보살이 다함께 수습해야 할 행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보살은 대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탈(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중생을 구제하며, 또 지혜(보리심)에 의하여 顛倒를 근본으로 하는 윤회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중도를 얻어 無住處涅槃을 성취한다고 설명하였다.

1) 방편을 구경으로 한다

『대일경』 「주심품」은 “菩提心を 因으로 하고, 大悲를 근본으로 하며, 方便을 구경으로 한다.”¹⁰⁾라고 하는 소위 三句法門을 중심으로 설해져 있다. 이 삼구의 원초적인 형태는 『대집경』 『대승장엄경론』 등의 대승경론 속에 發心·大悲·方便(혹은 究竟)이라는 용어로 나타나 있기도 하지만¹¹⁾, 삼구 중에서도 ‘방편을 구경으로 한다’는 대담한 선언을 하고 있는 데에 밀교의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방편을 구경으로 삼는다는 것은 만행이 지극히 원만하여 다시 더할 것이 없는 것을 말한다. 중생에 상응하는 방편을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것이다. 이것은 제호의 오묘한 결과이며 삼밀의 근원이다.¹²⁾

『대일경소』의 이 경문에서 밀교수행의 궁극적인 목표 즉 구경은 방편에

10) 『大日經』(『大正藏』 18, 1b-c), “佛言菩提心爲因。悲爲根本。方便爲究竟”

11) 長尺實導, 「대일경 주심품의 3구의 불교학적 해석」, 『智山학보』 8, 12쪽; 勝又俊教, 「보제심전개론의系譜」, 『印佛研』 17, 3쪽.

12) 『大日經疏』(『大正藏』 39, 587a), “方便爲究竟者。謂萬行圓極無可復增。應物之權究盡能事。卽醍醐妙果三密之源也”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깨달음을 얻은 자는 그 깨달음을 자기 안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되며, 중생 모두에게 그 깨달음의 영향이 미치게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이타활동과 연결될 때 비로소 깨달음의 의의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三句 가운데서 ‘방편을 구경으로 한다.’는 一句가 보살사상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蓮華戒(Kamalaśīla, A.D. 730-794)가 『修習次第』에서 논증해주고 있다. 8세기 말까지 인도대승불교에서 보살도는 6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6바라밀은 보시로부터 선정까지의 方便과 반야바라밀의 般若로 집약된다. 그리고 그 방편은 사마타, 반야는 위빠사나로 정의되어 있다. 연화계는 모든 보살도를 포섭하면 방편과 반야로 요약된다는 것을 『聖伽伽山頂經』 등의 경전을 인용하여 논증하고 있다.¹³⁾ 그리고 그는 『聖維摩詰經』을 인용하여 ‘지혜를 떠난 방편과 방편을 떠난 지혜는 보살도의 繫縛이다. 방편을 수반한 지혜와 지혜를 수반한 방편을 解脫性으로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수습차제』 제3편에서는 ‘방편선교를 떠난 보살은 심심한 법을 실행할 수 없다.’는 『諸經要集』의 용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 방편에 대하여 『대일경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방편은 공교로운 재주를 성취한 것과 같아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고, 법도대로 만들고 정확하여 모든 재주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 得意의 묘함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어려운 것과 같다. 『마하반야』에서 밝힌 육바라밀·십팔공·백팔삼매·삼십칠조도품·총지문 등이 모두 대비의 문구에 들어가며, 그러한 만행이 이루는 일체지지의 결과를 방편이라 한다. 안으로 방편을 갖추기 때문에 방편의 활동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것을 범음으로는 upāda라고 하고 發起라고도 한다. 씨앗에서 열매가 생기고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는 것과 같이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¹⁴⁾

13) 東武, 「カマテシテの教學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21/1 (1972). 李廷秀, 「大日經 住心品 三句法門 研究」(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38쪽에서 재인용.

14) 『大日經疏』(『大正藏』 39, 587b) 참고.

여기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내용과 방법을 밀교에서는 방편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교가 수행의 최종목표를 구경열반에 두는 데 비해 밀교는 구경방편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밀교는 방편을 보살정신 구현의 기초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홍법대사는 『秘藏記』에서 “方便爲究竟”의 뜻에는 向上과 向下的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한다.

보리심을 인으로 하고, 대비를 근으로 삼고, 방편을 구경으로 한다는 삼구의 의미는 진언행자가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한다. 범부지로부터 육바라밀을 수행하여 원만하게 성불하기 때문에 방편을 구경으로 삼는다고 한다. 그리고 성불한 이후에 대비로써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방편을 구경으로 삼는다고 한다. 향상과 향하로 글을 읽는데 따라 차이가 있다.¹⁶⁾

이것은 범부가 성불하기 위하여 6바라밀을 수행하는 향상의 문에서도, 이미 성불한 불이 대비로써 중생을 제도하는 향하의 문에서도 모두 방편을 구경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 보리심을 인으로 한다

보리심사상은 초기불교로부터 인도후기불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새로운 이념 아래 전개되어 왔다. 초기불교에서는 발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으로, 만야경에서는 무상정등각을 즐기는 깊은 마음으로 표현하였고, 화엄경은 “初發心時便成正覺”이라고 하여 초발심을 중요시하였다. 『대일경』 「주심품」은

15) 徐閔吉, 앞의 논문, 285-6쪽 참고.

16) 『眞言全』 2, 13쪽, “三句義 菩提心爲因 悲爲根本 方便爲究竟 卽是真言行者用心也 從凡夫修行六度 故曰以方便爲究竟 成佛以後以大悲濟度衆生 故曰方便爲究竟 向上向下讀文有異”

“무엇을 보리라고 하는가?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는 것을 말한다. 비 밀주여, 이것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이다.”라고 하여,¹⁷⁾ 자기의 마음을 본래 있는 그대로 이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서 보리와 일체지를 찾고 구할 것¹⁸⁾을 주장한다. 그것은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⁹⁾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의 본성이 본래 청정함을 여실지견 하는 것이 보리이며, 자기 마음의 본성이 본래 청정함을 여실지견하게 되면 불이 된다는 것이다. 이 “보리를 因으로 하고,” 因에 내제하는 “悲를 根으로” 하여, 이 둘로부터 필연적으로 발로하는 “방편을 구경으로 하여”, 개성과 능력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행의 가치를 가르칠 것을 주장하는 것이 『대일경』이며, 자기의 마음에서 보리와 일체지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보살임을 알 수 있다.

대승불교 교설들은 대부분 보리심을 智와 悲, 반야와 방편의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비하여, 『대일경소』는 『대일경』의 因(hetuka), 根(mūla), 究竟(paryavasāna)의 삼구에 관하여 밀교의 독자적인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²⁰⁾ 이 삼구를 실천함으로써 반야와 방편을 함께 수습하여 절대적 지혜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 절대적 지혜가 보리이며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절대적 지혜인 보리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마음을 60심 혹은 160심으로까지 분류하여 분석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空이며 본성청정이라고 설명한다.

『대일경소』는 ‘보리심을 인으로 삼는다.’는 문구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17) 『大日經』(『大正藏』 18, 1c), “云何菩提。謂如實知自心。祕密主是阿耨多羅三藐三菩提”

18) 같은 글, “自心尋求菩提及一切智”

19) 같은 글, “何以故本性清淨故”

20) 長澤實導, 『瑜伽行と密教の研究』(東京: 大東出版社, 1978), 563-576쪽 참고

일체의 희론을 초월하여 청정한 허공처럼 내증에 의한 행에서 깊은 믿음의 힘을 얻어 살바야심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업에 의해 생을 받는 것에서 떠나 진실한 삶을 성취하며, 온갖 공덕이 이로부터 증장되기 때문에 보리심을 인으로 삼는다고 한다.²¹⁾

즉 보리심은 본래 허공처럼 청정하여 모든 공덕이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리심을 인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리심은 “희고 깨끗한 信心”²²⁾이며, “오로지 한 뜻으로 일체지지를 구하는 마음”²³⁾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정리하면, 구하고자 하는 보리, 일체지 혹은 아녹다라삼막삼보리는 그것을 구하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하며, 결국 구하는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함을 자각하는 것이 보리이고 일체지이며 아녹다라삼막삼보리라는 것이다. 붓다구히야의 『대일경광석』을 보면 보리심에 보리를 지향하는 마음과 보리자성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리심에도 두 종류가 있다. 보리를 지향하는 마음과 보리를 자성으로 하는 마음이 그것이다.²⁴⁾

보리를 구하는 마음은 모든 경전에서 말하는 일반적 의미의 보리심이다. 그러나 보리를 자성으로 하는 마음은 밀교만의 독특한 견해이다.

또 『대일경』은 “마음과 허공계와 보리의 셋은 차이가 없다. 이들은 대비를 근본으로 하고 방편바라밀에 의하여 만족된다.”²⁵⁾고 한다. 이 말은 보리심이

21) 『大日經疏』 권1(大正藏 39, 586c), “出過一切戲論如淨虛空。於內證所行得深信力。薩婆若心堅固不動。離業受生成就眞性生。萬行功德從此增長。故曰菩提心爲因也”

22) 같은 글, 587a, “菩提心。卽是白淨信心義也”

23) 같은 글, 588a, “菩提心名爲一向志求一切智智”

24) 覺密, 『西藏譯大日經住心品廣釋』, 40쪽; 『東北目錄』 No. 2663, fols. 271b, 272a 참고; 李廷秀 2002, 79쪽.

인이라면 대비는 보리심의 본래 성품을 깨달아 드러내기 위한 인연이고, 방편은 6바라밀로 여긴다는 것이다. 『대승열반경』의 “불성을 正因으로 하고 보리심을 인연으로 한다.”는 것과 비교하면 『대일경』은 보리심을 정인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 보리심을 인연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보리심은 여래장 혹은 불성이라는 용어와 경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보리심의 의미를 함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일경』이 말하는 보리심의 공덕은 다음과 같이 대단하다.

이 보살의 보리심문은 초법명도라고 한다. 보살이 여기에 머물며 배우고 닦으면 영원히 괴로움이 없다. 문득 일체의 모든 장애를 없애는 삼매를 얻으며, 이 삼매를 얻은 자는 제불보살과 동등하게 머문다. 5신통을 발하고, 무량한 語言 다라니를 획득하고, 중생들의 마음의 행을 알고, 제불이 보호하면서 지켜주고, 설령 생사에 처하더라도 더러워지거나 집착하지 않으며, 법계의 중생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무위계를 성취하여 머물고, 사전에서 벗어나 정견을 통달한다. 또 비밀주여, 일체 장애를 없애는 삼매에 머무는 보살은 신해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부지런히 수행하지 않아도 모든 불법을 만족한다. 비밀주여, 요약하자면 이 선남자 선여인은 무량한 공덕을 다 성취한다.26)

『대일경』의 보살은 이와 같이 보리심을 내기만 하여도 십지의 초지에서 벌써 초법명도를 얻고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은 『대일경』이 보살은 초지에서 바로 제불보살과 동등하게 된다는 ‘初地即極’의 개념도 가

25) 『大日經』 권1(大正藏 18, 1c), “心虛空界菩提三種無二。此等悲爲根本。方便波羅蜜滿足”

26) 같은 글, “此菩薩淨菩提心門。名初法明道。菩薩住此修學。不久勤苦。便得除一切蓋障三昧。若得此者則與諸佛菩薩同等住。當發五神通。獲無量語言音陀羅尼。知衆生心行。諸佛護持。雖處生死而無染著。爲法界衆生不辭勞。倦成就住無爲戒。離於邪見通達正見。復次祕密主。住此除一切蓋障菩薩。信解力故。不久勤修。滿足一切佛法。祕密主以要言之。是善男子善女人。無量功德皆得成就”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대비를 근으로 한다.

대자대비를 근본으로 하여야 중생의 괴로움을 구하고 나아가 일체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이 말 속에 『대일경』의 보살사상이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일경소』는 三句를 종자와 뿌리와 열매에 비유하여 大悲爲根을 “사대의 여러 인연에 의하기 때문에 뿌리가 생긴다.”²⁷⁾고 설명하고, 청정한 신심(보리심)이 견고하게 증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에서 그(보리심) 다음으로 ‘대비를 근으로 삼는다’는 것을 설한 것²⁸⁾이라고 한다. 일본의 曇寂師는 『住心品疏私記』 제1권에서 『대일경소』의 이 설명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보리심의 종자가 점차 뿌리와 싹을 내는 것을 大悲라고 한다. 대비는 만행이다. 대비만행으로 인하여 보리심이 뿌리내리는 것을 대비의 근이라고 한다.²⁹⁾

식물의 뿌리가 땅속의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여 식물의 몸을 견고하게 버티게 하고 자라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처럼, 대비는 보리심이 견고하게 증장하게 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대일경소』에서는 “뿌리는 잡고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며, 나무뿌리가 줄기와 꽃과 열매를 붙잡아 넘어지거나 뽑히지 않게 하는 것과 같다.”³⁰⁾고 “大悲爲根”의 根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대비의 悲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7) 같은 글, 586c, “籍四大衆緣。故得生根”

28) 같은 글, 587a, “爲令如是淨信心堅牢增長經中次說大悲爲根”

29) 『住心品疏私記』 권1(大正藏 60, 506a), “菩提心種子漸生根芽名爲大悲 大悲是萬行 由大悲萬行菩提心生根 大悲之根”

30) 『大日經疏』 권1(大正藏 39, 587a), “根是能執持義。猶如樹根執持莖葉花果。使不傾拔也”

悲는 범음으로 *karuna*이다. *ka*는 괴로움이라는 뜻이고, *runa*는 잘라 없앤다는 뜻이다. 慈는 예쁜 싹을 널리 심는 것이고, 悲는 잡초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悲는 大慈의 뜻까지 겸하고 있다.³¹⁾

이 경문에서 悲는 慈悲의 의미이며, “大悲爲根”의 大悲는 大慈大悲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지도론』에서 이미 “大慈는 중생들이 즐거움을 얻게 하고 중생들에게 즐거운 일을 주는 것이고, 大悲는 중생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겨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³²⁾라고 밝힌 바 있듯이 대자대비는 보살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덕목이다. 이어서 『대일경소』는 5대의 性德으로도 大悲를 설명하고 있다.

비원을 일으켜 여러 중생에게 회향하고, 모든 고통을 뽑아 한량없는 즐거움을 베풀어준다. 자신의 선근과 여래가 가지하는 법계의 힘으로 말미암아 묘업이 행하는 것은 모두 성취된다. 이는 곧 一切智의 지위와 모든 유정계에 이르기까지 수행자가 머무는 바 없는 마음으로 닦은 모든 행에 따라 모두 근을 생한다. 이것은 바로 地界가 대비를 執持하기 때문이고, 火界가 대비를 따뜻하게 기르기 때문이고, 수계가 촉촉함을 대비에 더하기 때문이며, 風界가 대비를 열어 발생하기 때문이고, 허공이 대비를 장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때에 무량한 바라밀의 문이 자유로이 개발되어 싹과 뿌리와 가지와 잎이 차례로 나와서 나무를 장엄하는 것처럼 일체의 심법에 인연이 두루 갖추어진다는 뜻이다.³³⁾

31) 같은 글, 587a, “梵音謂悲爲迦盧拏。迦是苦義。盧拏是剪除義。慈如廣植嘉苗。悲如芸除草穢。故此中云悲。卽兼明大慈也”

32) 『大智度論』(『大正藏』 25, 256c), “大慈者念令衆生得樂亦與樂事。大悲憐愍衆生苦亦能令脫苦”

33) 『大日經疏』 권1(『大正藏』 39, 587a), “發起悲願迴向群生。拔一切苦施無量樂 由自善根。及與如來加持法界力故。所爲妙業皆得成就。卽是普於一切智地。乃至無餘有情界。皆悉生根也。隨行者以無住心所修萬行。卽由大悲地界所執持故。大悲火界所溫育故。大悲水界所滋潤故。大悲風界所開發生故。大悲虛空不障礙故。爾時無量度門任運開發。由如牙根枝葉次第莊嚴。卽是於一切心法。具足因緣之義也”

여기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주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대승보살의 비원을 말하는 것이며, 수행한 모든 행의 공덕으로 모든 유정이 빠짐없이 널리 대비의 근을 만들게 한다는 것은 대승보살의 수행목적이다. 또 무량한 바라밀행을 하여 모든 심법에 성불의 인연을 갖추는 것은 대승보살의 행 그 자체이다. 이와 같이 ‘대비가 근이 된다.’는 句도 결국 대승보살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일경』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인 보리심을 원인으로 삼고, 중생에 대한 대자대비를 근본으로 하여, 현상에 대한 적응 즉 방편을 목적으로 한다.’³⁴⁾는 三句를 대승보살의 실천도로서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Ⅲ. ‘보살’의 정의

『대일경』은 身密·口密·意密으로써 존재하는 대비로자나여래가 시공을 초월한 광대금강법계궁에서 보살신을 사자좌로 하여 실존인물이 아닌 19집금강을 상대로 법을 설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미진수의 지금강중들과 함께 하는 그 자리에는 보현보살, 자씨보살 등의 여러 대보살이 둘러싸고 있다. 그 때 금강수가 부처님께 “누가 일체지를 찾고 구합니까?, 누가 보리를 위해 정각을 이루려고 합니까?, 누가 그 일체지를 일으킵니까?”³⁵⁾하고 묻는다. 바로 이 질문 속에 『대일경』 보살의 정의가 들어있다고 본다.

1. 자신의 마음에서 보리와 일체지지를 찾고 구하는 사람

34) 金剛秀友, 『密教哲學』, 元義範 옮김(서울: 經書院, 1982), 109쪽.

35) 『大日經』 권1(大正藏 18, 1c), “世尊誰尋求一切智。誰爲菩提。成正覺者。誰發起彼一切智智”

위의 질문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비밀주여, 자신의 마음에서 보리와 일체지지를 찾고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본성이 청정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으며, 양 중간에도 있지 않다. 마음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 비밀주여, 마음·허공계·보리의 셋은 다르지 않다. 그것은 앓을 根으로 하며 방편바라밀을 만족시킨다. 그러므로 비밀주여, 내가 제법을 설하는 것은 이와 같이 모든 보살대중들이 보리심의 청정한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밀주여, 남자든 여자든 보리심을 알려고 하면 마땅히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³⁶⁾

이 경문으로 보아 『대일경』은 자신의 마음에서 보리와 일체지지를 찾고 구하는 사람을 보살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은 허공처럼 모든 분별과 무분별을 떠나 있고 본성이 청정하고 마음과 허공계와 보리 이 셋은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부처님이 여러 가지 법을 설하는 것은 보살들이 청정한 보리심을 알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2. 머무는 바 없는 마음에 머무는 사람

『대일경소』는 「주심품」의 명칭을 설명하는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품은 모든 보살들이 진실한 말을 문으로 삼고, 자기 마음이 보리를 발하도록 가르친다. 즉 마음에 만행을 갖추고, 마음의 정등각을 보고, 마음의 대열반을 증득하고, 마음의 방편을 일으키고, 마음의 불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게 하여,

36) 같은 글, 1c, “佛言祕密主。自心尋求菩提及一切智。何以故本性清淨故。心不在內不在外。及兩中間心不可得…祕密主。心虛空界菩提三種無二。此等悲爲根本。方便波羅蜜滿足。是故祕密主。我說諸法如是。令彼諸菩薩衆。菩提心清淨知識其心。祕密主若族姓男族姓女。欲識知菩提。當如是識知自心”

원인으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두 머무는바 없이 그 마음에 머물기 때문에 입진언주심품이라고 한다.³⁷⁾

이 경문에서 “항상 진실한 말을 하고, 自心으로 보리를 발하여, 마음에 만행을 갖춤으로써 정등각하여 대열반을 증득하고, 방편으로 청정한 불국토를 성취하는 사람 즉 보리심을 발하는 데서부터 열반을 증득하여 청정한 불국토를 성취하기까지 집착함이 없는 사람”은 대승불교 모든 경전에서 ‘보살’로 정의하여 온 것이다.

3. 삼세무애지계(三世無礙智戒)를 받아 불의 삼밀에 상응한 사람

제2 「구연품」에 주무희론집금강이 부처님께 삼세무애지계를 설해달라고 청하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자여, 잘 들어라. 만약 족성의 아들로서 이 계에 머무는 자는 신어의를 합하여 하나로 하고 모든 법을 조작하지 않는다. 무엇을 계라고 하는가? 이른바 관찰하여 자신을 버리고 여러 불보살에게 봉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버리면 그 삼사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사란 무엇인가? 身·語·意를 말한다. 그러므로 족성의 아들이 신어의의 계를 받으면 보살이라는 이름을 얻는다.³⁸⁾

여기서 身·語·意를 합하여 하나로 한다는 것은 여래의 三密과 행자의 三業이 가지·상응하여 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아사리가 자신의 삼업을 버

37) 같은 글, 579b, “此教諸菩薩。眞語爲門。自心發菩提。卽心具萬行。見心正等覺。證心大涅槃。發起心方便。嚴淨心佛國。從因至果。皆以無所住而住其心。故曰入眞言門住心品也”

38) 같은 글, 6a-b, “佛子諦聽。若族姓子住是戒者。以身語意合爲一。不作一切諸法。云何爲戒。所謂觀察捨於自身。奉獻諸佛菩薩。何以故捨自身則爲捨彼三事。云何爲三。謂身語意。是故族姓子。以受身語意戒得名菩薩”

리고 여래의 삼밀에 가지하여 평등하게 된 것을 뜻한다. 요약하면 아사리가 삼세무애지계를 받아 자신의 삼업을 버리고 불보살의 삼밀에 가지 상응하게 되면 보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4. 삼매야로 마음을 깨쳐 중생을 이롭게 하는 존귀한 진언자

제11 「비밀만달라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진언자는 비밀도량 안에서 제5의 중요한 서원을 갖추고 법에 따라 관정을 해야 하며, 이와 다른 것은 삼매야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삼매야)에 잘 머물며 뜻을 관찰하면 진언자는 마음을 깨쳐 삼처를 얻지 않게 된다. 그를 일컬어 보살이라고 하며, 그는 무연의 관행을 얻어 방편으로 여러 가지 선근의 근본을 심기 위하여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인자한 사람들 중의 존귀한 분이라고 부른다.³⁹⁾

여기서 삼처는 행자자신과 관찰대상인 법, 성취하는 시기의 셋을 말하며, 삼처를 얻지 않는다는 것은 이 셋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서원을 세우고 삼매야 속에서 뜻을 관찰하여 마음을 깨쳐 삼처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무연의 관행을 얻어 방편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인자한 사람 중에서도 존귀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 보살의 정의는 다른 대승경전의 보살정의와 더욱 유사하다.

5. 5계를 수지하고 일체지를 추구하는 재가자

제18 「수방편학처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39) 『大日經』(『大正藏』 18, 33b), “是故眞言者 祕密道場中具第五要誓 隨法應灌頂 當知異此者 非名三昧耶 善住若觀意 眞言者覺心 不得於三處 說彼爲菩薩得 無緣觀行 方便利衆生 爲植衆善本 故號仁中尊”

보살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엇이 둘인가? 이른바 재가와 출가이다. 비밀주여, 그 재가의 보살은 오계의 구를 수지하고, 갖가지 방편도를 가지고 때와 장소에 따라 자유자재로 섭수하여 일체지를 추구한다. … 보살은 설명한 바와 같은 선계를 수지하여 확실하게 믿고 부지런히 닦고 배워야 예전 모든 여래가 배운 것을 따라 유위계에 머물면서 지혜방편을 구축하여 여래의 위없고 길상한 무위의 계들에 이를 수 있다.⁴⁰⁾

이 경문은 보살을 재가보살과 출가보살로 나누고, 5계를 수지하고, 방편으로 중생을 섭수하여, 일체지를 추구하고, 여래의 지혜방편을 구축하고 여래의 위없는 무위계에 이를 수 있는 자를 재가보살로 설명하고 있다. 다른 대승경전의 보살의 정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보리를 즐겨 구하는 자

제26 「설여래품」에는 다음과 같은 문답이 나온다.

무엇을 보살이라고 합니까? …… 보리는 허공의 상으로써 일체의 분별을 떠나 있으며, 그 보리를 즐겨 구하는 자를 보리살타라고 한다.⁴¹⁾

즉 허공처럼 모든 분별을 떠나있는 보리를 즐겨 구하는 이를 보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초기불교 이래 반야경에 이르기까지의 보살의 정의 그대로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일경』의 보살을 정리하면 (1)자신의 마음에서 보리와

40) 같은 글, 39c-40a, “應知菩薩有二種。云何爲二 所謂在家出家。祕密主 彼在家菩薩受持五戒句。勢位自在。以種種方便道隨順時方。自在攝受求一切智。……菩薩受持如所說善戒。應具諱信當勤修學。隨順往昔諸如來學處。住有爲戒。具足智慧方便。得至如來無上吉祥無爲戒蘊”

41) 같은 글, 42c, “云何名菩薩 … 菩提虛空相 離一切分別 樂求彼菩提 名菩提薩埵”

일체지지를 찾고 구하는 사람 (2) 머무는 바 없는 마음에 머무는 사람 (3)삼세무애지계를 받아 불의 삼밀에 상응한 사람 (4)삼매야로 마음을 깨쳐 중생을 이롭게 하는 존귀한 진언자 (5)5계를 수지하고 일체지를 추구하는 재가자 (6)보리를 즐겨 구하는 자로 정리된다. (3)을 제외한 나머지 정의는 초기불교 이래 반야십지⁴²⁾와 화엄십지⁴³⁾에서 내린 보살의 정의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밀교의 보살은 『금강정경』에 이르러서야 조복하기 어려운 중생을 위하여 방편상 분노를 취하는 분노존 형상의 금강살타라는 밀교 특유의 새로운 명칭⁴⁴⁾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대일경』의 보살에 현교와 다른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初地即極의 입장을 지니고 있다⁴⁵⁾는 것이 그것인데, 『대일경소』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진언에 들어가는 문은 간략하게 말하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신밀문이고 둘째는 어밀문이며 셋째는 심밀문이다. 이것을 아래에서 널리 설하겠다. 행자는 이 세 가지 방편으로 삼업을 스스로 깨끗하게 함으로써 곧 여래의 삼밀에 가지하게 된다. 나아가 이 생에서 地波羅蜜을 능히 만족하게 된다. 또한 여러 겁을 지나면서 빠짐없이 모든 對治의 행을 닦는 것도 아니다. 그런 까닭에 『대품경』에서는 “혹은 보살이 처음 발심할 때에 즉시 상위의 보살계위인 불퇴전위를 증득하고, 혹은 보살이 처음 발심할 때에 즉시 무상보리를 얻고 곧 법륜을 굴린다.”고 하였다.

용수는 “멀리 갈 때 양을 타고 가는 자는 오래 걸리고 말을 타고 가는 자는 그 보다 빨리 도착하고 신통이 있는 자는 마음을 내면 그 이루고자 하는 뜻에 곧 도달한다. 發意의 間隙을 증득하지 못하고서 어떤 것에 도달하겠는

42) 『大品般若經』(『大正藏』 5, 31c; 90c).

43) 『華嚴經』(『大正藏』 9, 542c).

44) 金永德, 「金剛頂經의 菩薩思想 研究」, 『密教學報』 제2집, 100-101쪽.

45) 徐閔吉, 「密敎의 敎學的 位相과 그 特性」, 『한국불교학』(1995), 287쪽 참고.

가. 神通相이 이러하므로 의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즉 이것이 이 경의 깊은 뜻이다.⁴⁶⁾

이와 같이 밀교의 보살은 단계나 차례를 따르지 않고 “처음 발심할 때에 불퇴전위를 증득하거나 즉시 무상보리를 얻고 법륜을 굴린다.”고 하여, 初地 안에 이미 佛果가 들어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밀교는 현교의 보살십지 설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10地の 모든 단계를 至極의 경지로 보고 10地 전부를 높거나 낮음이 없고 깊거나 얕음도 없다고 본다.⁴⁷⁾ 이는 「주심품」에서 “진언문에서 보살행을 수습하는 모든 보살은 무량무수백천나유타겁 동안 쌓아 모은 무량의 지혜공덕과 모든 행을 수습하는 무량의 지혜방편을 모두 성취한다. 이것은 천신과 인간이 귀의하는 바로써 모든 성문과 벽지불은 물론 석제환인 등이 친근하고 경례한다.”⁴⁸⁾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밀교는 초지에서 불과를 증득할 수 있다고 보는 본유무구의 初地即極의 이념과 함께 초지에서 십지로 한단계한단계를 거쳐서 과보를 상승 해가는 初地分證의 실천사상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한 개인의 이념과 실천의 차이이기도 하고 동시에 실천의 진전과정이기도 하며, 서로 다른 수행자 사이의 근기의 차이이기도 하다.⁴⁹⁾

46) 『大日經疏』(『大正藏』 39, 579b-c), “入眞言門略有三事。一者身密門。二者語密門。三者心密門。是事下當廣說。行者以此三方便。自淨三業。卽爲如來三密之所加持。乃至能於此生。滿足地波羅密。不復經歷劫數。備修諸對治行。故大品云。或有菩薩初發心時。卽上菩薩位得不退轉。或有初發心時。卽得無上菩提便轉法輪。龍樹以爲如遠行。乘羊去者久久乃到。馬則差速。若乘神通人。於發意頃便至所詣。不得云發意間云何得到。神通相爾不應生疑。則此經深旨也”

47) 金剛秀友, 『密敎の哲學』(京都: 平樂社書店, 1980), 273-277쪽 참고.

48) 『大日經』 권1(大正藏 18, 3b), “眞言門修行菩薩行諸菩薩。無量無數百千俱胝那庾多劫。積集無量功德智慧。具修諸行無量智慧方便。皆悉成就。天人世間之所歸依。出過一切聲聞辟支佛地。釋提桓因等。親近敬禮”

49) 金剛秀友, 앞의 책, 273-277쪽 참고.

IV. 『대일경』의 보살도

「수방편화처품」에 보면 집금강비밀주가 부처님께, “보살마하살들에게 지혜방편을 갖추고 닦고 배워야 할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하자 비로자나세존은 “금강수여, 잘 들어라. 선교수행의 도를 설명하겠다. 만약 보살마하살 중에서 여기에 머무는 자는 마땅히 대승에 통달할 것이다.”⁵⁰⁾라고 10선업계를 수습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대일경』은 초기불교 이래의 10선업계로부터 보살행을 설명한다. 그렇지만 현교와는 달리 제2 「구연품」에서부터는 만달라(曼荼羅)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실천수행법을 강조하고, 제27 「세출세호마법품」으로부터 제30 「세출세지송품(世出世持誦品)」까지는 밀교의 기본적인 행법(行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대일경』은 부동지 이상의 보살이 佛地에 이르는 방법을 설명하면서도 지옥이나 이수라 축생 등의 경지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차원이 낮은 각종 구원의 방편도 시설하고 있다. 법신 대일여래는 10계를 몸으로 삼기 때문에 10계의 모든 중생을 구원성취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부처님이 마땅히 제도해야 할 중생이 있다면, 부처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문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연각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보살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범천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라연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마후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것 등의 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각 내는 말과 소리는 같으며 여러 가지 위외에 머물지만 그 일체지지의 도는 한 가지 맞입니다. 이른바 여래의 해탈의 맞은, 세존이시여,

50) 『大日經』(『大正藏』 18, 39a), “世尊願說諸菩薩摩訶薩等。具智慧方便。所修學句。… 諦聽金剛手。今說善巧修行道。若菩薩摩訶薩。住於此者。當於大乘而得通達。… 菩薩持不奪生命戒所不應爲。持不與取。及欲邪行。虛誑語。麤惡語。兩舌語。無義語戒。食欲。瞋恚。邪見等”

비유하면 분별을 떠난 허공계와 같아서 분별이 없으며 분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⁵¹⁾

이와 같이 밀교의 이타적인 수행은 보살행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으면서 아래로는 지옥에서부터 위로는 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과 내용이 교설되어 있고 밀교는 그것의 성취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⁵²⁾

본고에서는 수많은 밀교의 보살도 가운데서 관법을 중심으로 한 밀교의 대표적인 보살도 몇 가지만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1. 三密加持

『대일경』은 때와 장소에 한정되지 않는 대일여래의 무궁무진한 身口意 활동을 설명한 경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는 대일여래의 身口意 三密활동이 현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현실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가치에 중생들이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한 법문이 『대일경』이고 중생의 눈을 뜨게 하는 수행도가 三密加持이다.

구카이(公海)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삼밀이란 1은 신밀, 2는 어밀, 3은 心密이다. 범불의 삼밀은 지극히 깊고 미세하여 等覺 10地도 보고 들을 수 없으므로 密이라 한다.”⁵³⁾ 즉 삼밀은 범불의 삼밀 측면에서 보면 신체 활동은 우주 전체의 움직임이며, 언어활동은 우주에서 언어로 하는 활동 전부를 말하고, 의밀은 우주의 질서·理法 전부를 말한다. 즉 우주가 곧 진리이며, 그

51) 『大日經』(『大正藏』 18, 1b), “若有衆生應佛度者。卽現佛身。或現聲聞身。或現緣覺身。或菩薩身。或梵天身。或那羅延毘沙門身。乃至摩[目*侯]羅伽人非人等身。各各同彼言音。住種種威儀。而此一切智智道一味。所謂如來解脫味世尊譬如虛空界 離一切分別。無分別無無分別”

52) 徐閔吉, 앞의 논문, 282-5쪽 참고.

53) 公海, 『卽身成佛義』, 『弘全』 第1輯, 513)

진리가 그대로 살아서 활동하는 것이 불이며 이것이 범신대일여래라는 것이다. 3밀가지란 여래의 삼밀을 중생의 3밀 위에 투영하여 행자의 체험 속에서 하나로 만들어 둘이 둘이면서도 하나라는 자각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불의 신·구·의 삼밀은 ‘나’를 포함한 우주의 활동 전부이기 때문에 凡佛이一如한 속에 살면서 불3밀의 상징형식에 전념함으로써 둘의 합일이 달성되어 실재로서의 우주의 활동과 현상으로서의 사람의 활동이 일치된 경지를 삼밀가지라고 한다.

그래서 행자는 손으로 여러 가지 모양[印]을 맺고, 입으로 眞言을 외우고, 마음을 한 경계에 집중하는 三密觀에 의하여 자신이 부처라는 自覺을 얻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을 향상해 나간다. 『대일경』은 「밀인품」 제9에서 삼밀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밀주여, 여래가 장엄하고 있는 것처럼 법계 중생의 표치도 마찬가지이다. 보살은 이것으로 몸을 장엄하기 때문에 생사 가운데서 6도의 여러 갈래를 거처더라도 모든 여래의 큰 모임에서 이 대보리의 깃발을 가지고 그것을 표치로 하면 천룡, 아차, 건달바, 아소라, 갈로다, 마후라가, 인간, 인간이 아닌 것 등이 그를 공경하며 둘러싸고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게 된다.⁵⁴⁾

여기서 여래가 장엄하고 있다는 것은 손으로 모양을 맺는 인계를 의미하며, 보살도 손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맺고 진언을 일심으로 수행하면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그를 공경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일경소』는 여래의 신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54) 『大日經』(『大正藏』 18, 24b), “祕密主有同如來莊嚴具。同法界趣[巾*票]幟。菩薩由是嚴身故。處生死中巡歷諸趣。於一切如來大會。以此大菩提幢。而[巾*票]幟之。諸天龍夜叉乾達婆阿蘇囉揭嚕茶緊那囉摩[目*侯]羅伽人非人等。敬而遠之受教而行”

이른바 여래 身密의 印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금강수에게 고하노니, 印을 맺는다는 것은 여래가 법계의 중생들과 똑같이 꾸며서 표시를 같게 한다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은 이렇게 장엄하기 때문에 여래 법계의 몸을 성취한다고 말한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이 법을 행한다면 印으로써 가지하기 때문에 여래 법계의 몸과 같아진다. 이 인은 곧 법계의 표치이다. 이 인으로 말미암아 법계의 체를 표시하게 되고, 그로 인해 법계의 깃발이라고 한다. 제불은 이로써 몸을 장엄하기 때문에 모든 큰 모임에서 이 무상대보리를 표시하는 기치를 건립한다.⁵⁵⁾

즉 여래의 신밀은 여래가 중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말하고, 중생이 여래의 신밀에 가지하면 여래의 법계의 몸과 같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밀로 장엄한 여래는 무상대보리를 나타내는 표지를 건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밀인품」은 다양한 인계와 진언을 설명하는데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 密印의 相은 마땅히 定慧의 손을 사용하여 마음을 비우고 합장해야 한다. 정혜의 두 허공륜을 가지고 나란히 합쳐서 그것을 건립한다. 계송을 설한다. 이것은 일체제불이 세상을 구제하는 큰 인계인 정각의 삼매야이며 이 인계에 머문다.⁵⁶⁾

이렇게 「밀인품」은 ‘一切諸佛救世大印’으로부터 다길니인에 이르기까지 139종의 밀인과 진언을 설하는데, 이러한 여래의 밀인과 진언은 모두 여래의 信解에서 생겨나 보살을 표시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인계를 맺고 진언문

55) 『大日經疏』(『大正藏』 39, 714a), “謂將說如來身密之印也。次卽告金剛手。有印名爲如來莊嚴具同法界趣標幟同者。言一切佛以此爲莊嚴故。得成如來法界之身。若有衆生行 此法者。以印加持故。亦同如來法界身也。此印者卽是法界之標幟。以此印故。標示法界之體。卽名法界幢也。諸佛其由此嚴身故。於一切大會中。建此無上大菩提標幟”

56) 『大日經』(『大正藏』 18, 24b), “是密印相。當用定慧手。作空心合掌。以定慧二虛空輪。並合而建立之。頌曰此一切諸佛 救世之大印 正覺三昧耶 於此印而住”

보살행을 수습하는 여러 보살은 이미 보리심을 발하여 여래지에 머물러 만
달라를 그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래의 이러한 밀인은 관정을 받은 자,
비밀법을 따를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자, 법에 정진하는 자, 견고한 서원을 가
진 자, 스승을 공경할 줄 아는 자, 은덕에 감사할 줄 아는 자, 자신의 신명을
버리고 청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만 전수받을 수 있다.⁵⁷⁾

2. 월륜관

모든 유정에게는 본래 보현보살과 같은 위대한 보리심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삼독에 오염되어 본성을 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진언행자는 제불의
대비에 의해 실시된 비밀유가를 수습하고 보현보살의 대보리심을 개현하기
위하여 월륜관을 수습해야 한다. 『보리심론』에서는 월륜관을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수행자가 마음속으로 흰 월륜을 관하게 한다. 이렇게 관하며 본심을 비추어
보면 담연하고 청정하기가 마치 보름달빛이 허공을 두루 비추어 분별함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를 깨침이라고도 하고, 청정한 법계라고도 하고, 실상반야
바라밀의 바다라고도 한다. 한량없는 여러 가지 진귀한 보배 삼마지를 함장하고
있는 것이 마치 보름달이 깨끗하여 분명한 것과 같다. 누가 일체의 유정을 위하
여 모두 보현의 마음을 함유하는가? 나는 내 마음의 모습이 월륜과 같음을 본다.
무슨 까닭으로 월륜에 비유하는가? 보름달의 둥글고 밝은 체가 바로 보리심과
서로 같기 때문이다.⁵⁸⁾

57) 『大日經』(『大正藏』 18, 37b), “祕密主。是名如來祕密印。最勝祕密。不應輒授與人。除已灌頂。其性調柔。精勤堅固。發殊勝願。恭敬師長。念恩德者。內外清淨。捨自身命而求法者”; 『大日經疏』(『大正藏』 39, 751b), “若未灌頂。一切不得示也。次若調柔人(謂柔和善順而不卒暴等)次勤精進能有堅固勝願者。謂能發勤精進。自能發無量大願弘誓者。次恭敬師長(謂阿闍梨謂如法華身為床座等。又念恩德者(念報佛恩)清淨者(內外俱淨也)自身捨者(若求法不惜身命如雪山大士等)雖是入漫荼羅。要有如是德”

이와 같이 월륜관은 둥근 보름달의 모양을 마음의 모양 특히 보리심의 모습으로 간주하고 마음속으로 월륜을 관찰하여 마음의 본성을 비추어보는 관법이다. 만월이 모든 허공을 비추듯이 내 마음의 본체도 보현보살의 마음이 되면 깨치게 되고, 청정한 법계가 되고, 실상반야바라밀의 바다가 된다는 것이다.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 相似觀에서 점차 本體觀으로 나아가 마음의 본성을 고찰하는 관법이다. 월륜관이 습득되면 수행자는 그 월륜속에서 阿字를 관하는 아자관을 하게 된다.

3. 阿字觀과 五字嚴身觀

범어에서 a음은 50자문에서나 42자문에서나 알파벳의 최초에 위치하여 모든 자음(字音)의 근거가 되고, a를 동반하지 않고는 쓰기가 불가능하고, a를 접두사로 할 때는 항상 否定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소리를 대신하여 진실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언어는 경험적 지각의 영역을 초월한 진리라는 철학적인 의의를 부여하여 관상하는 방법을 수행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보리심론』은 아자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관을 수행하는 자는 처음에 아자로써 본심 가운데서 分明을 발기하고 점차 결백분명하게 하여 無生智를 증득한다. 아자의 의미는 모든 법은 본래 생겨남이 없다는 것이다.⁵⁹⁾

58) 『菩提心論』(『大正藏』 32, 573c), “令修行者。於內心中。觀白月輪。由作此觀。照見本心。湛然清淨。猶如滿月光遍虛空無所分別。亦名覺了。亦名淨法界。亦名實相般若波羅蜜海。能含種種無量珍寶三摩地猶如滿月潔白分明。何者。爲一切有情。悉含普賢之心。我見自心。形如月輪。何故以月輪爲喻。謂滿月圓明體。則與菩提心相類 凡月輪有一十六分”

59) 『보리심론』 권1(『大正藏』 32, 574a), “所以觀行者。初以阿字發起本心中分明。卽漸令潔白分明。證無生智。夫阿字者。一切法本不生義”

‘아’자는 사람이 입을 열고 소리를 낼 때 최초로 나오는 소리로서 一切法本不生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교에서는 아자야말로 모든 것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을 대일여래라 하고, 그 기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만달라라고 한다. 이 아자관을 점차 증대시켜 우주로 시야를 넓혀가서 자재를 얻게 되면 一切智를 얻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밀교에서 아자관은 항상 월륜관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이외에 밀교에서는 지·수·화·풍·공의 오륜에 해당하는 a, va, ra, ha, kha의 5자를 신체의 5개처에 나누어 배치하여 관상하는 오자엄신관을 수행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a는 anupada(不生), va는 vaktva(言說), ra는 raja(塵垢), ha는 hatva(因業), kha는 虛空의 뜻으로서 5륜은 5불을 나타내고 5智를 뜻한다. 그러므로 밀교에서 말하는 5륜은 법계와 여래의 삼매야를 나타낸다. 이외에 『대일경』은 「백자성취지송품」에서 a, va, ka로부터 ña, ña na, ma에 이르기까지 35字의 형상을 관하여 그들 하나하나의 삼매문에 들어가면 삼막삼불타의 수형호를 성취하게 된다⁶⁰⁾고 설명하고 있다.

a자관과 오자엄신관의 수행방법과 그 공덕을 살펴보면, a자는 일체여래가 가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언문에서 보살행을 수습하는 모든 보살은 일체 불심에 안주하여 열심히 수습하여⁶¹⁾, a자를 자신으로 삼게 되면 여러 가지 죄업과 탐욕과 진에 등에서 멀리 벗어나 청정함을 획득하여 여러 부처님과 같아지게 된다.⁶²⁾ va자에서 행자가 유가에 의지하면 자비와 애민의 물을 가지고 세간의 고통스러운 중생을 관찰하여 그 물을 마시는 자와 몸에 닿은 자는 반드시 보리를 성취할 수 있다. 모든 ra자문은 바퀴 둘레에 불빛을 비추어

60) 『大日經』(『大正藏』 18, 41c), “隨入此等一一三昧門。… 此等隨現成就三藐三佛陀隨形好”

61) 같은 글, 22c, “此阿字。一切如來之所加持。… 眞言門修菩薩行諸菩薩。… 於此一切佛心。當勤修習”

62) 같은 글, 21a, “若於眞言門 修行諸菩薩 阿字爲自身 … 遠離衆罪業 及與貪瞋等 當得俱清淨 同諸佛牟尼”

세간이 바라는 것을 두루 이롭게 하고 행자는 신통을 일으킬 수 있다. ra자를 下身으로 하고 ha자를 표치로 하면 작업이 빨리 성취되어 중죄를 지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⁶³⁾ ka, ca, ta, da, pa⁶⁴⁾를 처음과 중간과 끝에서 서로를 더하여 여러 종류의 等持로써 相에 들어가면 자연히 보리심⁶⁵⁾과 행을 획득하여 등정각과 반열반을 이루게 된다.⁶⁶⁾ 보살은 이 하나하나의 字句를 결정적인 뜻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며, 지혜를 가지고 覺知할 때는 당연히 위없는 수승한 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일륜 즉 字輪을 운전하는 진언자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세간을 관조하여 대일세존처럼 법륜을 운전하게 된다.⁶⁷⁾

밀교 이전에도 『대반야경』 권5 「광승품」과 『화엄경』 「입법계품」과 『대지도론』에도 42자문이 나타나 있다. 『대반야경』에서는 42자를 독송하는 사람에게는 20종의 공덕이 있다고 하고, 『화엄경』에서는 선재동자가 구도여행을 할 때 선지중예동자가 42자를 소리쳐 외우면 우주의 실상인 반야바라밀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용수도 『대지도론』에서 42자는 일체자의 근본이며⁶⁸⁾ 이 42자 외에는 어떤 다른 자도 없다고 하였다. 이들 경론들은 하나같이 a자를 42자의 근본으로 보고 제법은 본래부터 不生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42자 사상은 삼론, 천태 교학에까지 영향을 끼쳐 그들 교학에 채

63) 같은 글, 21b, “復次於[口*縛]字 行者依瑜伽 … 以是悲愍水 觀世苦衆生 諸有飲用者 或復身所觸一切皆決定 得成就菩提 … 一切囉字門 周輪生焰光 … 利世隨樂欲 行者起神通 … 囉字爲下身 訶字爲[巾*票]轍 作業速成就 救重罪衆生”

64) 이들은 모두 a자문에 속한다.

65) a는 발보리심, ā는 보리행, am은 성등정각, ah는 반열반이다.

66) 『大日經』(『大正藏』 18, 30c), “若欲了知眞言門修菩薩行諸菩薩。於此遍一切處法門。應勤修學。於躬遮吒多波。初中後相加。以等持品類相入。自然獲得菩提心行。成等正覺。及般涅槃”

67) 같은 글, “於此一一句。決定意用之。以慧覺知。當授無上殊勝句。如是一輪。輪轉字輪。眞言者了知此故。常照世間。如大日世尊。而轉法輪”

68) 『大智度論』(『大正藏』 25, 408b), “四十二字是一切字根本”

용되었다.

그리하여 42자는 보살의 42위 수행과정에 분배되고 a자는 태초로부터 본래 不生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無所得空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고, 더 나아가 밀교에서는 有, 空, 不生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독특한 a자설⁶⁹⁾을 전개하여 수행의 한 방법으로까지 이용하였다. 밀교에서는 이 有, 空, 不生의 개념을 전인격적인 규모로 받아들여 전 우주를 긍정하였는데, 이것이 阿字卽一切, 一切卽阿字의 밀교우주관이다.

4. 사지염송관

『대일경』은 「세간성취품」에서 진언의 실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과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서 자(字)와 성(聲)과 구(句)의 세 가지를 身口意의 삼업에 배당하여 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진언의 교법대로 행하면 그 과보를 성취한다. 당연히 글자와 글자가 상응하며, 구와 구도 마찬가지로이다. 심상을 만들고 염송하여 떨어져 잊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처음의 글자는 보리심이고 둘째는 소리(聲)라고 한다. 구(句)를 관상하여 본존으로 삼고 자신이 머무는 자리에서 행하여야 한다. 세 번째 구는 제불의 뛰어난 구(句)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행하는 그 지극히 원만하고 청정한 월륜에 머문다고 관상해야 한다. 그 속에서 성심껏 모든 글자를 관상하여 차례에 따라서 행하고 지구(字句) 등을 안치하여 관상하고 그 명을 정화한다.⁷⁰⁾

69) 범본의 a자에는 태초부터 본래 소리가 있으며 이것은 인연법이기 때문에 有라고 한다. 그러나 이 有는 실체로서 불변하게 존재하지는 않는다. 인연에 따라 잠시 존재하는 假有로서 인연이 다하면 생긴 법도 무너진다. 따라서 가유는 空이라 한다. 또한 뜻이 피는 것도 꽃이 지는 것도 젊음도 늙음도 모두 진실이다. 즉 불생이기도 하고 불멸이기도 하고 非有이기도 하고 非空이기도 하여 中道이다. 이것이 중론송에서 비롯되어 삼론을 거쳐 천태의 空·假·中 3제설로 발전되었고, 밀교에 와서는 유(有·不生)와 공(空·無生·無自性)과 불생(不生·中道)이 a자 속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보게 되었다.

즉 행자의 삼업이 본존의 삼밀과 가지·상응했을 때 본존의 진언이 행자의 몸에서 체현되어 수행자가 본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자로서의 보리심, 소리, 자신의 근본, 불의 근본 이 네 가지를 염송의 四支라고 한다.

선무외는 진언을 나타내는 자(字)는 본질적으로 보리심을 나타내고, 진언의 독송소리는 제법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며, 진언의 구(句)는 청정한 자신의 본존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청정한 보리심이 행자의 自心實相이 되면, 그 心相은 곧바로 제법의 실상과 일치하게 되고, 본존의 삼매와도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진언의 묘관이라고 한다.

5. 만달라관

만달라는 ‘본질’ ‘마음의 정수’ ‘제호’ 등을 의미하는 manḍa와 ‘소유’를 뜻하는 접미사 la의 합성어로서 ‘본질적인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밀교의 심원한 가르침을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열어 보이기 위해서 유상의 그림을 이용하게 된 연유를 『대일경』 「구연진언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혜가 하열한 중생들은 어리석은 애착에 의해서 自覺하고, 오직 有相에만 집착하여 항상 여러 가지 斷과 常과 때와 장소와 지은 업의 선과 불선의 모든 상을 즐긴다. 맹목적으로 과보를 즐겨 구하고 이 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이 법을 설한다.⁷¹⁾

70) 『大日經』 권3(『大正藏』 18, 17b), “如眞言教法 成就於彼果當字字相應 句句亦如是作想念誦 善住一洛叉 初字菩提心 第二名爲聲句想爲本尊 而於自處作第二句當知 卽諸佛勝句 行者觀住彼 極圓淨月輪 於中諦誠想 諸字如次第 中置字句等 而想淨其命”

71) 같은 글, 5a, “劣慧諸衆生 以癡愛自蔽 唯依於有著 恒樂諸斷常 時方所造業 善不善諸相 盲冥樂求果 不知解此道 爲度彼等故 隨順說是法”

초기불교 이래로 현묘한 붓다의 가르침을 어리석은 중생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계승이나 우화로 만들기도 하였고 불상이나 불화, 운보, 권 등 구상적인 표현형식을 빌기도 하였다. 『대일경』에서 대비로자나여래의 깨달음이라는 추상적인 경지를 중생들이 알기 쉽게 여러 가지 구상적인 모양으로 구현[神變]하여 수행자의 마음에 작용한다[加持]고 하는 생각을 상징적인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태장계만달라이다. ‘대비태장생만달라’의 ‘태장’이란 모태에 태아가 간직되어 있듯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만달라에 간직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달라에 의하여 사념하고 인식하고 온 몸으로 실천하면 성불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태장생만달라에서는 보리심의 인(因)을 탁태(託胎)에 비견하고, 대비의 근(根)을 출태(出胎)에, 방편의 구경(究竟)을 생장(生長)에 비유하여 수행자가 삼주전생(三句轉生)하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대일경』은 「구연품」에서 여래의 궁극적인 세계를 만달라를 통하여 표상화하고, 일체지자인 대일여래가 대비심을 가지고 제불보살을 생하여 수행자의 근기에 맞추어 제도하고 그들을 불보살의 세계로 이끌어 들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밀교에서 훌륭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번뇌를 버리고, 깊은 신심을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외에 관상을 통하여 대일여래와 일체가 되고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만달라를 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덕목은 대일여래를 관상하는 것이다. 대비태장생만달라는 대일여래의 마음으로부터 출현하는 것이므로 수행자는 관상을 통하여 대일여래와 일체가 될 때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만달라를 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달라를 관상하는 실천수행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일경』이 밀교경전으로 분류되게 된 것이다.

오직 원합노니 세존이시여, 다음으로 진언행을 수습하고, 대비태장에서 생하는 대만달라왕을 설해주십시오. 저 미래세의 많은 중생을 구호하고 안락하게 하

기 위한 것입니다. …… 지금 만달라행을 수행하여 일체지지를 만족하는 법문을 설하겠습니다.” 그 때 비로자나세존은 옛날 무진법계를 성취하여 모든 중생계를 남김없이 제도하려고 서원하였기 때문에 일체 여래는 다함께 모여 점차 대비장 발생삼마지에 증입하셨다. 제존의 일체지분에서 모든 여래신을 출현하시며, 그 초발심에서 십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을 위하여 널리 시방에 도달하여 불신의 본위로 돌아와서 본위 가운데 안주하신 다음 다시 환입하셨다.⁷²⁾

이 경문에서 일체지지의 법문을 만족시키는 행은 바로 만달라행, 대비태장생만달라왕이라는 진언행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진언행을 하는 것은 비로자나세존이 옛날 무진법계를 성취하여 모든 중생계를 남김없이 제도하려고 서원하였기 때문이며, 미래세의 많은 중생을 구호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한 서원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대승보살의 서원 그 자체이다. 또 대비장발생삼마지에 증입한 비로자나세존은 초발심에서 십지에 이르는 모든 중생을 위하여 널리 시방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과거·미래·현재의 삼세에 걸친 세존의 서원과 수행도가 이 경문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본존의 삼밀가지에 의하여 자신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밀교에서 이 만달라관 자체가 바로 밀교보살의 수행도임을 알 수 있다.

만달라에는 대만달라(大曼荼羅), 법만달라(法曼荼羅), 삼매야만달라(三昧耶曼荼羅), 갈마만달라의 네 종류가 있으며, 이 4만달라는 6대로부터 생긴 현상의 제법을 철학적으로 분류한 것이며, 종교적으로는 6대법신의 相狀을 4가지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만달라는 우주의 전체상과 보편적인 형상을 여러 존상의 형태로서 표현한 것이며, 법만달라는 종자로서 여러 존상을 표현한 것이고, 삼매야만달라는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의 특수상을 지니고 있는

72) 『大日經』(『大正藏』 18, 4a), “惟願世尊次說修眞言行。大悲胎藏生大曼荼羅王。爲滿足彼諸未來世。無量衆生。爲救護安樂故。…… 今說修行漫荼羅行。滿足一切智智法門。爾時毘盧遮那世尊。本昔誓願成就無盡法界。度脫無餘衆生界故。一切如來。同共集會。漸次證入大悲藏發生三摩地。世尊一切支分皆悉出現如來之身。爲彼從初發心。乃至十地諸衆生故。遍至十方還來佛身本位”

사물으로써 여러 존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법·삼매야·갈마 이 3종 만달라는 여래의 身·口·意의 삼밀을 상징한 것이다.

「백자위성품」에서는 “대비태장생만달라에서 대승의 관정을 받으면 조화롭고 부드러운 선행을 구유하여 항상 비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⁷³⁾고 한다. 그리고 진언문에서 보살행을 수행하는 모든 보살은 이와 같이 자신의 영상을 일으켜 수승한 삼보리를 범하는 일이 없다⁷⁴⁾고 한다. 그리하여 모든 본존이 곧 ‘나’가 되고 ‘나’는 곧 본존이 되어 서로를 발생시킨다⁷⁵⁾고 한다. 그러므로 만달라는 意와 다른 것이 아니고 意는 만달라와 다른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일을 만드는 意와 意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모두 空이다. 둘이 아니고 구별도 없기 때문이다.⁷⁶⁾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진언문에서 보살행을 수습하는 보살들은 이미 보리심을 발하고 마땅히 여래지에 머물러 마음속에 만달라를 그릴 수 있게 되어 자신이 비로자나불과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태장계만달리는 중관·유식 2대 유파 중 중관의 교의를 계승하면서 그것을 신비주의 체계로 지양하고 있다.

V. 보살의 수행계위

밀교는 역사적인 불타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법신 대일여래를 추구하며, 법신 대일여래는 법을 몸으로 삼고 삼체에 상주하기 때문에 전 법계를 그 몸으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법계는 지옥에서부터 불계에 이르는 10단계로 분류

73) 『大日經』(『大正藏』 18, 40c), “若悲生漫荼 得大乘灌頂 調柔具善行 常悲利他者”

74) 같은 글, 41a, “眞言門修菩薩行諸菩薩。如是自身影像生起。無有殊勝過三菩提”

75) 같은 글, 41a, “是故諸本尊即我。我即本尊。互相發起”

76) 같은 글, 41a, “非漫荼羅異意。非意異漫荼羅。… 意生衆事及意所生。如是俱空。無二無別”

하지만, 법신불의 경계에서 보면 10계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가 되어 법신불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법신 대일여래는 10계를 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결국 10계의 모든 중생을 구원성취의 대상으로 본다. 그런데 10계의 중생은 근기에 차이가 있고 겁에 차이가 있어서 구원을 성취하는 방법과 수행단계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1. 3겁의 수행단계설

3겁(TRI-kalpa)은 밀교에서는 3개의 겁을 말하고, 대승불교에서는 3대아승지겁(TRI-mahā-saṃkya-kalpa)이라고 하여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의 시간을 뜻한다. 그러나 밀교의 ‘3겁’은 무한대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속의 현상에 좌우되는 인식을 의미하므로 개인의 근기를 3단계로 분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일경소』 제2권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범어 까르파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時分이고 둘은 망집이다. 보통 해석에 의하면 3아승지겁을 건너 정각을 이룰 수 있다. 만약 비밀의 해석에 의하면 1겁을 넘는 유기의 행이란 즉 160십 등의 1重의 추망집을 건너는 것을 1아승지겁이라 한다. 2겁을 넘는 유기의 행이란 또 160십 등의 1重의 세망집을 건너는 것을 2아승지겁이라고 한다. 진언문의 행자는 또다시 1겁을 넘는다고 함은 다시 160십 등의 1重의 극세망집을 건너서 불지혜의 초심에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3아승지겁 성불이라고 한다.⁷⁷⁾

77) 『大日經疏』(『大正藏』 39, 600c), “梵云劫跋。有二義。一者時分。二者妄執。若依常途解釋。度三阿僧祇劫得成正覺。若祕密釋。超一劫瑜祇行。卽度百六十心等一重麤妄執。名一阿僧祇劫。超二劫瑜祇行。又度一百六十心等一重細妄執。名二阿僧祇劫。眞言門行者。復越一劫。更度百六十心等一重極細妄執。得至佛慧初心。故云三阿僧祇劫成佛也”

여기서 말하는 3이승지집은 보살이 수행하는 도중에 추·세·극의 3단계의 망집을 극복하여 성불하는 단계와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일경』 「주심품」의 “세간의 3망집을 넘어서 출세간심이 생긴다.”는 것을 해석한 것이다. 망집은 낮은 단계의 일상적인 미혹으로부터 높은 단계의 추상적인 미혹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추망집은 개인이 실체로서 영속성이 있다는 人執의 미혹을 말하며, 성문·연각의 2승이 이 단계의 미혹을 끊는다고 한다. 제2의 세망집은 法執의 미혹이라고 하며, 보살은 일체제법이 因緣所生の 假有임을 알고 주체와 객체의 無實體를 알아 형이상학적인 혼란을 극복하는 단계이며 대승에 준한다고 하여 權大乘이라고 한다. 최후의 극세망집은 無明의 惑이라고 하며, 보살이 일체제법의 一實中道를 아는 단계로서 천태·화엄의 일승불교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3집사상은 형식상으로는 현교의 시간론을 차용하였지만 밀교보살의 독자적인 실천철학으로 볼 수 있다. 3개의 집을 2승·권대승·일승불교에 배대하여 설명하면서도 밀교 보살의 수행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보살 개인의 근기의 차이로도 볼 수 있다.

2. 6무외 습득의 수행단계설

6무외를 습득해가는 보살의 수행단계는 문자 그대로 6가지 두려움이 없는 경지를 획득하여 가는 과정을 말한다. 무외(nirbhaya)는 공포나 긴박감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말하지만 밀교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신적인 생명의 부활과 자기 마음의 양양을 목표로 수행해가는 단계를 나타낸다.

6무외는 (1)10선계를 지키는 등으로 3밀 실천의 제1보를 내딛는 단계인 善無畏(san-nirbhaya) (2)부정관과 삼밀수행을 통하여 본존의 모습을 보고 외형상의 안온을 얻은 단계인 身無畏(kāya-nirbhaya) (3)我和 我所의 집착에서 벗어나 현전한 본존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성문과 같은 단계의 無我無畏

((nirātmya-nirbhaya) (4)法無我를 체득하여 자기 앞에 현전한 본존도 물속의 달처럼 관하는 연각승과 같은 단계의 法無畏(dharma-nirbhaya) (5)주·객관의 구별이 끊어져 마음이 자유자재한 단계로서 제불보살이 모두 자기 마음이 나타난 것으로 보는 단계의 法無我無畏(dharma-nirātmya-nirbhaya) (6)色心不二·能所不二가 되어 일체제법의 불생불멸을 다 관하여 심신의 절대평화를 얻은 경지의 平等無畏(smātā-nirbhaya)를 말한다.

6무외는 보살이 마음을 닦아 점차 향상해가는 순서로서, 앞의 3겁이 망집을 다스려가는 단계라면 6무외는 마음을 다스리고 닦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10지⁷⁸⁾설

10지설은 『화엄경』 「십지품」에 근거를 둔 대승불교 보살계위의 통설이다. 이것을 『대일경』이 채택하였다는 것은 밀교가 실천철학에서 대승불교 특히 『화엄경』의 10신·10주·10행·10회향·10지라는 보살 수행의 5단계과정의 최후 단계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일경소』제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초지의 보살이 이 허공과 같이 티 없는 보리심을 얻는 때에 자연히 십무진계에서 십대원을 내어 나중에는 백만아승지 대원을 만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보리심을 인으로 하는 것이다. 제2지로부터 그 이후는 대비만행을 더욱 많이 닦는데, 이것이 끝없이 많은 대원이 10법계에서 근을 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점점 더 증장하여 제8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 이후를 모두 방편지라고 한다. 불성론에서는 8지 이상의 경계는 모두 같으나 단지 방편에 의거하여 단계가 있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⁷⁹⁾

78) 1歡喜地, 2離垢地, 3發光地, 4焰慧地, 5難勝地, 6現前地, 7遠行地, 8不動地, 9善慧地, 10法雲地

신해지를 종합하여 말하면 종자가 된다. 2지는 싹이고, 3지는 줄기이고, 4지는 잎이고, 5지는 꽃이고, 6지는 열매이고, 7지는 곡식에서 나온 종자이고, 8지는 두려움 없는 의지치인 열매 중의 열매이고, 9지는 불지로 나아가 지혜가 생기므로 가장 뛰어난 마음이라고 한다. 10지에서 이 마음이 결정된다. 이 두 마음은 경계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제8심 가운데서 방편에 의거하여 전전하면서 그것을 열어 내어놓을 뿐이다.⁸⁰⁾

즉 세간의 160심을 초월한 초지의 淨菩提心을 설명하면서 십지 수행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밀교는 이념적으로는 卽身成佛, 生佛不二를 내세우고 실제와 현상의 일치를 강하게 표방하면서도 성불에 이르는 보살의 계위는 이와 같이 10지로 설명한다. 구카이(公海)는 정보리십이 발현되어 가는 과정을 십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는 외도로부터 소승과 대승의 교설을 차례대로 배당한 十住心으로 설명하고 있다.⁸¹⁾

그러나 밀교는 ‘地地遷登의 10地’라는 현교의 보살계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밀교는 10지 하나하나를 모두 至極의 경지로 보고 높고 낮음이나 깊고 얕음이 없는 ‘本有無垢의 10지’로 본다. 초지 안에 이미 불과가 들어있다고 보는 소위 初地卽極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信的 구조와 10주심의 두 가지 해석에서도 알 수 있는데, 三句와 十地를 연계하여 설명하는 淨嚴師의 『冠註住心品疏略解』에 잘 드러나 있다.

79) 『大日經疏』(『大正藏』 39, 604c), “是初地菩薩。得此虛空無垢菩提心時。自然於十無盡界。生十大願。乃至滿足百萬阿僧祇大願。以此卽是菩提心爲因。從二地以去。增修大悲萬行。卽是無盡大願。於十法界生根。乃至漸次增長。至第八地。以去皆名方便地。佛性論云。八地以上境界皆同。但約方便爲降階耳”

80) 같은 글, 604c-605a, “更約前三心。作十心說之。若通論信解地。則初地爲種子。二地爲牙。三地爲疱。四地爲葉。五地爲花。六地爲果。七地爲受用種子。八地爲無畏依。所謂果中之果。九地爲有進求佛地慧生。是最勝心。十地此心決定。此二心無別境界。還是於第八心中。約方便轉開出之耳”

81) 李廷秀 2002, 177쪽.

이 삼구에는 四重의 비밀스러운 해석이 있다. 첫째는 얇고 간략한 해석[淺略釋]으로서 地前에 三句를 세우는 것이다. 이른바 그 밖의 因·行·果는 모두 꿈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얇고 간략한 것이 된다. 둘째는 깊고 비밀스러운 해석[深秘釋]으로서 地上에 三句를 세우는 것이다. 初地는 因句가 되고 2지에서 7지까지는 根句가 되며, 8, 9, 10의 3地는 究竟句가 된다. 이것은 초지로부터 나누어 증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비밀스러운 것 중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해석[秘中深秘釋]으로서, 초지에서는 삼구를 문득 거처 원만하고 지극함[圓極]을 스스로 증득하며, 2지 이상은 남을 교화하는 방편선교로써 지위의 계급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른바 이 경문은 초발심으로부터 십지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차례대로 만족함을 낳는 글들로 되어 있다고 한다. 사실에 의거하면 출생의 뜻은 지위의 점진적인 계위 내용을 헤아리는 글이지만, 비밀스러운 기록에 나아가 보면 초지와 십지에는 높고 낮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평등하고 바르게 해석하면 여기에는 중복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넷째는 비밀스럽고 비밀스러운 것 가운데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해석[秘秘中深秘釋]으로서, 地前과 地上은 모두 모든 덕을 갖춘 법신의 체성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살타의 한 생각의 청정한 신심이 곧 불지혜의 극치이다. 이와 같이 실제로는 높고 낮음이 없을지라도 높고 낮음을 나누자면 근기에 깊고 얇음이 있고 날카롭고 둔함이 있어서 수행하여 증득하는 데에도 그 극치를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⁸²⁾

이 글에 의하면 네 가지 해석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밀교의 보살 계위는 10지로 되어 있지만, 셋째의 初地即極의 해석과 넷째의 發心即極의 해석은 밀교의 독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밀교 이전에 『화엄경』에서 이미 初發心時便成正覺이라고 하여 發心即極의 개념을 실한 적은 있지만 의미상의 차이는 있다.

또 『대일경소』의 “信解라는 것은 처음의 진정한 발심으로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을 통틀어서 신해지라고 한다.”⁸³⁾는 경문에 대하여 “정통밀

82) 『冠註住心品疏略解』 권3.

83) 『大日經疏』(『大正藏』 39, 580c), “信解者。始從真正發心乃至成佛。於是中間通名信解地”

교가들 사이에서 신해는 佛果에 통한다고 하는 해석이 지지되어 왔고, 『大疏百重第三重』에서도 初地究竟=十地究竟=佛果得益이라는 관계⁸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밀교의 신해는 초지구경이고 동시에 10지구경이고 이것이 바로 불과득익이라는 점은 한단계한단계 세로로 수행을 거듭하여 올라가는 현교의 수행차제와는 달리 가로의 수행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대일경소』 제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에 비밀주는 신해행지에서 3심과 무량바라밀다의 慧觀과 사십법을 관찰한다고 하였다. 신해지는 無對이다. 무량이다. 불가사의이다. 10심을 세우며 무변의 지혜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는 이 경의 종지이며 정보리심을 따르는 이상의 10주지는 모두 신해의 행이다. 오직 여래만을 구경일체지지라고 한다.⁸⁵⁾

즉 밀교가들은 10지의 10이라는 숫자는 ‘無對絶對의 10’ 또는 ‘無惑의 10지’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10지 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本有無垢의 10지=初地卽極=無惑의 10지=이념
 修生顯得의 10지=初地分證=有感의 10지=실천⁸⁶⁾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을 보이는 것은 보살의 이념과 실천의 차이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실천의 진전과정이기도 하고 서로 다른 보살의 근기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입진언주심품」에서는 “진언문에서 보살행을 수행하는 모든 보살은 무량무수한 백천나유타겁 동안 무량한 공덕과 지혜를 쌓고 무량한 지혜

84) 金剛秀友, 『密敎의 哲學』, 元義範 譯(서울: 진언종밀교학부, 1981), 292쪽.

85) 『大日經疏』(『大正藏』 39, 604c), “經云。祕密主信解行地。觀察三心無量波羅密多慧觀四攝法。信解地無對無量不思議。建立十心無邊智生者。此經宗。從淨菩提心以上十住地。皆是信解中行。唯如來名究竟一切智地”

86) 金剛秀友, 앞의 책, 328쪽

와 방편의 모든 행을 갖추어 닦아 모든 것을 다 성취하였다.”⁸⁷⁾고 하여, 아직 불과에는 이르지 못한 향상의 과정에 있는 보살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유희신통으로 중생계를 제도하기 위하여 나투는 보살이 있는데, 이 때의 보살은 보살이기는 하지만 앞의 보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서운길교수는 이에 대하여, “『대일경』 「입진언주심품」⁸⁸⁾, 「실지출현품」⁸⁹⁾, 「지명금계품」⁹⁰⁾ 등에서는 전자의 보살을 보살행보살이라고 하고 후자는 佛行菩薩 또는 法行菩薩이라고 한다.”⁹¹⁾고 하였다. 위에 든 품 외에도 『대일경』에는 “보살행을 하는 모든 보살[菩薩行諸菩薩]”이라는 용어는 곳곳에 나타나지만 佛行菩薩 또는 法行菩薩이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다. 또 서운길 교수는 보살사상에 관한 한 밀교는 법행보살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고, 비록 밀교 경전들 속에 보살행보살사상이 교설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행보살사상을 증득하게 하기 위한 방편적인 교설⁹²⁾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소위 ‘佛行菩薩’은 『대일경』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대지도론』의 “중생을 위하여 오래도록 생사에 머물러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취하지 않고 널리 중생을 제도”⁹³⁾하는 보살이나 “멸도를 하고자 하여도 방편

87) 『大日經』(『大正藏』 18, 3b), “眞言門修行菩薩行諸菩薩。無量無數百千俱胝那庾多劫。積集無量功德智慧。具修諸行無量智慧方便。皆悉成就”

88) 같은 글, 3bc, “菩薩有幾種得無畏處 … 祕密主彼愚童凡夫。修諸善業害不善業。當得善無畏。若如實知我。當得身無畏。… 當得無我無畏。… 當得法無畏。… 法無我無畏。… 當得一切法自性平等無畏。若眞言門修菩薩行諸菩薩。深修觀察十緣生句。當於眞言行通達作證”

89) 같은 글, 19c, “眞言門修菩薩行諸菩薩得是通達法界不可分析破壞。… 金剛手有諸如來意生。作業戲行舞。廣演品類。攝持四界安住心王。等同虛空。成就廣大見非見果。出生一切聲聞。及辟支佛。諸菩薩位。令眞言門修行諸菩薩。一切希願皆悉滿足。具種種業。利益無量衆生”

90) 같은 글, 37b, “爾時金剛手。復以偈頌。請問大日世尊持明禁戒。爲眞言門修菩薩行諸菩薩故…具戒如佛智 異此非具戒 得諸法自在 通達利衆生”

91) 서운길, 앞의 논문, 293쪽.

92) 서운길, 같은 글, 293-4쪽 참조.

력으로 말미암아 열반을 증득하지 않는”⁹⁴⁾ 보살들은 바로 그 불행보살과 동일한 보살들이라고 생각된다. 대승보살은 일체중생을 모두 제도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하였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기 전에는 보살은 성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대일경』의 보살의 수행계위는 현교의 보살10지를 받아들여면서도 구경방편을 강조하여 初地究竟=十地究竟의 입장에 서 있고, 특히 八地 이상의 方便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I. 결 어

『대일경』의 모든 교학체계는 「주심품」의 삼구법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살사상의 이론체계와 실천체계도 당연히 삼구법문으로써 설명할 수밖에 없다. 밀교에서 범부가 불로 향상하기 위해서 즉 보살이 수행을 통하여 즉신성불하기 위해서는 일체지지 즉 보리심을 증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리심은 완전하게 완성된 마음 즉 160심을 초월한 대보리심이어야 하며 이 대보리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悲를 가지고 중생구제를 향하여 끊임없이 보살도를 실천하여야 한다. 또 대일여래는 실제의 모습으로는 형상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방편을 구경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수행자는 삼밀가지, 월륜관, 아자관, 오자엄신관, 사지엄송관, 만달라관 등의 여러 가지 관상법을 통하여 자기를 구제하고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대일여래의 법신에 대한 즉신성불의 감응을 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보살은 중생들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보리심을 인으

93) 『大智度論』(『大正藏』 25, 283c), “爲衆生故久住生死。不取阿耨多羅三藐三菩提。而廣度衆生”

94) 같은 글, 754c, “卽欲滅度以方便力故不取涅槃證”

로 삼아 모두가 범신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이며, 그 구제와 깨달음은 밀교의 특성상 부득이 방편을 쓸 수밖에 없으며, 구경은 일체지지의 전개 바로 그것으로서 보살사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일경』은 보살을 ‘자신의 마음에서 보리와 일체지지를 즐겨 찾고 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초기불교 이래 반야십지와 화엄십지의 보살의 정의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지만 初地(卍極)의 입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대일경』의 보살 수행계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현실을 중시하여 여래의 일체지지가 대비로써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마음의 차원에서 현실세계를 비로자나불의 진리의 세계 그대로라고 보는 『대일경』의 菩薩思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순수하고 청정한 붓다의 세계와 다름없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 준다. 만약 밀교에서 즉신성불의 이념만을 말하고 보살의 수행노력을 부정하였다면 개개인의 마음속의 비밀스럽고도 심오한 세계를 개발할 수 없을 것이다.

『대일경』의 이러한 메시지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세계의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게 해준다. 요컨대 우리들 개개인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이 범신비로자나를 존속시키는 원인이고, 이때 깨달음이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여실하게 두루 아는 것’이며, 우리 인생은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과정일 때에 참된 의미를 가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대일경(Mahāvairocana Sūtra), 보살(bodhisattva), 三句法門(Teaching of three Verses), 보리심(Enlightened mind), 悲心(Altruism), 方便(Upāya),

The Bodhisattva Ideal of *Mahāvairocana Sūtra*

Lee, Bong-Soon

All teaching system in *Mahāvairocana Sūtra* is based on the Teaching of Three Verses (三句法門)—Enlightened mind is cause, Altruism is root, Upāya is Ultimate (菩提心爲因, 悲心爲根, 究竟爲方便)—in the Section of Stage of Mind (住心品).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system in the bodhisattvas' thought of this sūtra must be also explained by the Teaching of three Verses. In the Esoteric Buddhism, ordinary people should realize bodhicitta (菩提心), so to speak, Mahābodhicitta surpassing the ordinary people's mind in order to become a Buddha.

All of the bodhisattvas make bodhicitta inherent in ordinary people's mind a cause and relieve ordinary people from pains in reality regarding them as dharmakāyabuddha. They also make use of upāya for achieving salvation of ordinary people and enlightenment and develop buddha's omniscience ultimately. Through these activities bodhisattvas disclose the thought of the bodhisattva. In *Mahāvairocana Sūtra* the bodhisattva is defined as a being who seeks bodhi and omniscience in its mind with delight. This definition succeeds the definition from early buddhism to ten stages in *Prajñāpāramitā Sutra* (般若經) and *Avatamska Sutra* (華嚴經). But the peculiarity of the bodhisattvas' stages of *Mahāvairocana*

Sūtra is that the ultimate stage lies in the first stage.

The bodhisattvas' thoughts of Mahāvairocana Sūtra which put this world in the same category with the Mahāvairocana Buddha World give us a promising message that worldly reality is the same with pure Buddha World. And this sutra teaches us that our life is meaningful only when we can truly know our mind.